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첫 관문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어제 '제주도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 가결도, 11년만의 조직 감축… 공무원 정원 20명 줄어 정무부지사 소속 공보관, 도지사 직속 대변인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 이후 11년만에 조직 감축에 나선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국(大局)·대과(大課)'를 근간으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조직 운영의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따라 도 본청은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이 안전교통실로 통합되는 등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 1과가, 제주시는 1과, 서귀포시는 1국 2과가 줄어든다. 공무원 정원도 6164명에서 6144명으로 20명 감축된다.

개편안에는 현재 정무부지사 소속 공보관이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변경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체육국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통폐합 예정이었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는 현행 유지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월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설공단 문제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상정 보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심사가 미뤄져 왔다.

이날 행자위는 개정조례안의 문화체육국 소관 평생교육과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개발사업을 관광국 개발사업으로, 서귀포시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수정했다.

이와함께 서울본부 3급 직제를 4급으로 조정하고, 대변인실 인사 및 조직 변동시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한편 이날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두고 시민의 자기결정권 무시, 산남 소외론 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조직개편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적용될 전망이다. 오은지기자

"산업·중기·에너지 예산 39% 감소 우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서 지적 기금 재정건전성 약화도 걱정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이 지역경제에 더욱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대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서다.

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비 기능별 세출이 비교적 높게 감소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39.23%) ▷교육 분야(-9.86%) ▷국토 및 지역개발(-9.76%) ▷문화 및 관광분야(-9.72%) ▷과학기술분야(-4.10%) ▷교통 및 물류분야(-3.52%) 등이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이 올해보다 12.3% 증액 편성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들면서 제주도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편성 감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실업률 급등과 1997년 IMF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현재 지역경제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문화 및 관광분야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위축을 불러와 비대면 행사로의 방향 전환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관련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가 2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해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손질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기금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도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주관광진흥기금 고갈위기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위원은 도에 설치된 23개(통합관리기금 제외) 기금 중 제주관광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기금수입에 비해 과다한 지출사업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등 재정 건전성 약화 우려가 있어 이에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증액 편성되고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속도

환경도시위원회

유치위원회 설치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오는 2023년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유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COP28'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COP28'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도의회의장 및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 선출된 사람이 공동 담당하게 된다.

이날 환도위는 유치위원회가 'COP28' 장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는 부칙을 신설하고 조례안을 처리했다.

환도위는 또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조사 청구는 제주시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오수발생에 대한 적절한 협의과정 없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도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국비사업 발굴 안간힘

신규사업 30건 등 6037억 발굴

제주시가 2022년 신규 사업 등 국비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발굴한 2022년 국비사업이 신규 30건에 361억원 등 총 6037억원(350건)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규모로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2개소에 55억원) ▷제주보육원 개축공사 사업(15억원)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41억원) 등이다.

시는 국비 확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안동우 시장 집무실에서 보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SOC 사업, 제주형 뉴딜 사업, 한국판 뉴딜 등 중앙정부 연계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논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2021년 국비로 전년보다 10% 증가한 5461억원을 확보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20 아름다운 간판상에 '모슬포정미소'

서귀포시, 수상작 5곳 선정

올해 최고의 간판으로 선정된 대정읍의 '모슬포정미소' 간판. 사진=서귀포시 제공

커피전문점 '모슬포정미소'가 아름다운 간판상 대상에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1일 '2020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에 따른 대상 등 수상작 5개를 선정·발표했다. 수상작은 ▷서귀포시의 자연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서귀포다운 간판 ▷건물·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간판 ▷업소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간판 ▷친환경 소재·절전형 전기재료 등을 사용한 친환경 간판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5개 작품의 간판주·간판 시공업소에는 각각 상금·상패가 수여된다.

올해 수상작은 ▷대상-대정읍 소재 커피전문점 '모슬포정미소' ▷금상-안덕면 소재 독채펜션 '덕수하루' ▷은상-강정동 소재 음식점 '보래식탁' ▷동상-안덕면 소재 커피전문점 '비아라테'·법환동 소재 제과점 '슈언니 마카롱' 등 5곳이다.

대상을 수상한 '모슬포정미소'는 할머니·부모가 쌀을 빻고 떡을 만들던 자리에서 손녀가 커피를 내리고 쌀과자를 만드는 업소의 이야기·정체성을 담아 투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동파이프를 이용해 친환경적이면서 개성있는 간판으로 제작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영종기자

毛羅始祖

乾 始 大 祭

쌀쌀한 날씨가 벌써 초겨울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道民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財團에서는 耽羅(乇羅)를 創始하신 三乙那의 偉業을 기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번영과 道民의 안녕을 기원하는 **2020年度 乇羅始祖 乾始大祭**를 다음과 같이 **奉享**합니다.

다 음

o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11:00**
o 장 소 : **삼성사 혈단** (제주시 소재 삼성혈)

헌 관
초 헌 관 **원희룡(元喜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 헌 관 **정민구(丁珉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종 헌 관 **이승택(李承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및 제족, 지역주민의 참례를 제한하고 음복도 생략하여 봉향하오니, 제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됨을 유념하여 주시고,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향일(12/10, 목) 삼성혈 관람시간은 13:00부터입니다.

2020. 12. .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이사장 고 정 언

제9회 장한철 선생 〈표해록〉 기념
전도 청소년 백일장 작품 공모

■ 목 적
제주도 유형문화재 27호이자, 해양문학의 백미인 장한철 선생 〈표해록〉의 문헌적 가치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굴하여 격려 하고자 함
■ **응모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생
■ **응모 글감 :** 제주 바다, 해녀, 장한철, 표해록,
■ **응모 분야 :** 산문 또는 시 (순수창작품일것, 응모작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응모 방법 :** 개인 및 단체 응모
■ **접수처 :** (이메일) puppy6571@hanmail.net
(우 편) (63049) 제주시 중구엄길 36 애월문학회
★ 작품에 학교, 학년, 반, 보호자 연락처 기록하여 제출
■ **작품마감 :** 2020년 12월 15일
■ **입상작발표 및 시상 :** 2020년 12월 중 개인적으로 통보
■ **시상내용**

구분	고등	중등	초등	시상내용
대상		1		(도지사 상) 및 애월문학회제공 상품권 30만원
금상	1	1	1	(교육감 상) 및 애월문학회제공 상품권 20만원
은상	2	2	2	(시장, 교육장상) 및 애월문학회제공 상품권 10만원
동상	2	2	2	(애월읍장 및 문학회장상) 애월문학회제공 상품권 5만원
장려상	2	2	2	(하귀, 애월농협조합장상)상장 애월문학회제공 상품권 3만원

★ 기타 문의 : 010 4691 1505 (애월문학회)

주최: 애월문학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애월읍, 애월농협, 하귀농협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